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우리가 본 세종 : 한 눈에 세종시를 담다

랜드마크와 스카이라인 재배치를 통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

2016. 10. 22

서광근, 송하선, 김연준, 김영빈, 김예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랜드마크와 스카이라인 재배치를 통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

서광근, 송하선, 김연준, 김영빈, 김예나

1. 탐사의 필요성

가. 건물의 심미성과 도시의 발전

- 1) 뉴욕, 파리, 런던 등의 주요 도시들은 각 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랜드마크들의 심미적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아름다운 곡선들로 부드러움을 나타낸 다든지, 다른 건물들과의 조화를 이뤄 멋진 스카이라인을 이룬다던지 말이다. 이러한 심미적 요소들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그 도시의 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 완전히 도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세종시를 대표한다고 할 만한 랜드마크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탐사를 통해 세종시의 건물들을 탐사하고 건물들의 심미적 요소를 파악하여 앞으로 발전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2) 우리가 탐사할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인 만큼, 뛰어난 도시경관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심미성과 경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그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3일의 탐사기간 동안 우리가 본 세상에서의 세종시를 촬영하여 보정 처리 없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세종시의 모습을 담을 것이다.

나. 세종시 홍보자료의 부재

- 1)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그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정부청사와 같은 주요 행정 건물들이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또한, 세종시는 점점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인 관광을 위해서는 홍보자료가 필수적이다.
- 2) 그러나, 세종시에는 이러한 홍보자료가, 특히 건물들의 도식화 방면에서의 홍보자료가 부족하다.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시 랜드마크들의 특징(낮은 건물들 등)을 잘 살리지 못했고, 단순한 아파트의 배열만 늘어져있다. 그러므로 3일 동안 탐사한 건물들의 심미성을 탐구한 후, 그 심미성을 부각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였다. 도식화를 위해 사용할 건물은 정부



청사, 대통령 기록관, 세종 도서관, 밀마루 전망대 등으로, 우리 세종시의 삶과 가장 밀접한 건물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 탐 그림 3 현재 사용되는 세종시의 홍보자료

가. 전체적인 개요

사 과정

- 1) 세종시의 주요 랜드마크와 그곳을 중심으로 한 스카이라인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2) 각 랜드마크의 특성에 대해 파악한 내용, 스카이라인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도시 이미지를 디자인한다.

나. 1일차 현장탐사

국립세종도서관 ==> 대통령기록관 ==> 세종호수공원



그림 4 도서관 부근 이동경로



그림 5 호수공원 부근 이동경로

다. 2일차 현장탐사

정부세종청사 ==> 밀마루전망대



그림 6 정부세종청사 부근 이동경로

라. 자료조사

2박 3일 동안 모두 장소를 방문할 수 없었기에, 나머지 장소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조사로 대체한다.

3. 탐구결과

가. 1일차 탐사결과

1) 국립세종도서관

가) 스카이라인



도서관의 지붕이 곡선으로, 스카이라인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 (1) 국립 중앙 도서관의 분관 성격을 띄어 많은 책들을 보관하고 있다.
- (2) 구체성: 건물의 형태가 책을 형상화해 눈에 띄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상(레드닷 디자인 상 등)을 수상
- (3) 접근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중앙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 (4) 편리성; 호수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2) 대통령기록관

가) 스카이라인



대통령기록관만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은 단조롭다.

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 (1)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물 관리를 담당한다.
- (2)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와 사진 영상 사무집기를 보존해 놓음
- (3) 큐브형의 독특한 건물
- (4) 각국에서 온 역사적 선물 전시하는 등 박물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5)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활동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였다.

3) 세종호수공원

가) 스카이라인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 산과 같은 자연, 독특한 건축물들이 만드는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다.

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 (1) 세종호수공원은 국내최대의 인공호수로 주변의 국립세종도서관과 배경의 전월 산과 그림과 같은 모습을 이룬다.
- (2)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세종시의 다양한 축제가 이뤄지는 장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가지도록 축제섬, 무대섬, 물놀이섬, 물꽃섬

과 습지섬 5개의 인공섬을 제작하였다.

- (3) 이는 세종시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로, 심미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하면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2일차 탐사결과

1) 정부세종청사

가) 스카이라인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옥상의 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구조물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각 부처를 연결하는 통로가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 (1) 접근성: 세종시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전국을 2시간 안에 갈 수 있다.
- (2) 편리성: 옥상의 공원을 비롯하여 정부청사 주변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 (3) 구체성: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고, 용의 형상을 닮아있다.
- (4) 공유성: 신분증 검사 등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공유성은 떨어진다.

2) 밀마루 전망대

가) 스카이라인



나무가 이루는 스카이라인의 중간에 두드러져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 전망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하다.

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 (1) 세종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주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 (2) 심미성: 투명한 엘리베이터와 슬림한 구조가 특징인 건축물이다.
- (3) 접근성: 산 위에 있지만 높지 않고, 정부 청사에서 가까워 접근성은 좋다.

(4) 편리성: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이 산만 있어 편리성은 매우 낮다.

다. 자료조사 결과

1) 금강

금강은 전라북도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군산만으로 흘러드는 우리나라 6대 하천 중 하나이다. 비단(錦) 같은 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천천히 찰랑이는 금강의 물결은 비단같이 매끄럽고 아름답다. 예로부터 문화를 꽃피우고 지역을 잇는 교류의 다리가 되어주던 금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가로지르며 행복도시의 젓줄이 되어주고 있는데,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청은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등 금강변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르지 않는 수자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보존 가치가 있는 금강 주변 생태계와 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 경관 등에서 금강은 세종시에 매우 의미있는 장소 중 하나이다.

2) 한두리고

행복도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등의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율성과 더불어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행복도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에서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리 또한 명품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다. 행복도시의 금강변에는 현재 주요장대교량 5개가 지어져 있는데, 그중 크다를 뜻하는 '한'과 원을 의미하는 '두리'를 모아 붙여진 한두리고는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다리로 의미가 있다. 뚝단배를 형상화해 원형 주 탑을 디자인하여 교각이 금강을 떠다니는 아름다운 뚝단배처럼 보여진다.

3) 세종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서식지

금개구리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주로 논밭이나 수로에 서식한다. 참개구리와 모습이 매우 비슷하지만 등에 줄이 없고 밝은 녹색을 띤다. 크기는 30~65mm 정도이며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의 평야 지대에 살고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논밭에 금개구리가 깔려 있었으나, 지역개발의 여파로 논밭이 많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개구리 또한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4)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는 회의,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14년 10월 준공을 완료하였다. 세종호수공원에 바로 인접해 있으며 전면이 유리로 시공되어 있어 센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정부세종청사를 조망할 수 있어 각종 정부행사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다.

5)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청사는 실내 업무환경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등 다양한 공간계획과 특화된 디자인이 공공청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하여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4. 결론 및 제언

가. 스카이라인에 대한 결론

1) 선의 모양

건물 옥상의 선은 직선보다는 곡선, 사선 등을 이용하여 다채로움을 주는 것이 좋다. 옥상의 태양발전기, 세종정부청사의 옥상공원 등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은 그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2) 절대적인 높이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땅 위이기 때문에, 건물의 절대적인 높이가 높아지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 빌딩 숲이 만들어진다. 건물의 절대적인 높이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상대적인 높이

이웃한 건물들의 높이가 비슷한 것보다는, 다양함을 주는 것이 좋다.

4) 자연과의 조화

건축물뿐만 아니라, 산, 호수 등의 자연이 이루는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5) 기타

다리 등에 의한 스카이라인은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나. 도시 이미지 제작

각 랜드마크에 대해 탐구한 내용, 스카이라인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특징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작한다.



그림 13 제작된 도시 이미지

다. 탐사의 한계점

- 1)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원하던 모든 장소를 방문하지 못했다.
- 2) 탐사기간 동안 짙은 안개가 끼어, 선명한 사진을 얻지 못했다.
- 3) 스카이라인의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것으로, 이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결국 이에 대해 깊이 탐구하지 못하고, 간단한 고찰 정도로 결론맺을 수밖에 없었다.

라. 탐사의 의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사는 다음의 의의를 갖는다.

- 1) 세종시를 가꾸어 가는 데에 있어 ‘스카이라인’이라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 2) 현재 세종시의 홍보에서 아쉬운 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3) 우리 각 개인에게는, 지내고 있지만 잘 몰랐던, 세종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5. 활동 후기

송하선: 도시 이미지, 그 중에서도 랜드마크와 스카이라인의 기능과 요구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세종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디자인하여 그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본 탐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다른 친구들, 세종시와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 위에 기록하였듯이 아쉬움도 남지만, 직접 발로 뛰며 탐사한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한다.

김연준: 인문자연탐사에 앞서 행복청장과 LH공사 직원의 강의를 통하여 세종시에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부여하고, 도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건축물들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에 이번 탐사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국립세종도서관, 밀마루 전망대, 정부청사와 하늘정원 등을 탐사하고 조사하며 세종시 건축물만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짧아 더 많은 곳을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건축물 뿐만 아닌 전반적인 세종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